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박준원이 꽃을 보는 방법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 **목표** :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박준원의 지혜로움에 대해 안다.
• **주제** : 지혜

핵심어 조선, 박준원, 거지, 꽃, 부자, 향기, 주머니, 선비

한국문화 • **목표** : 이야기를 듣고 주머니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주머니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듣고 소리는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배워 본다.
• **단어** : 아깝다, 아끼다
• **표현** : 백 냥을 주려니 아까웠어요.
백 냥을 아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박준원이 꽃을 보는 방법’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꽃을 좋아하나요? 할머니는 좋아하는 꽃이 많아요. 봄에 피는 개나리는 노란 색깔이 좋아요. 여름에 피는 무궁화는 피고 지고 또 피는 모습이 아름답지요. 가을에 피는 국화는 향기가 좋아요. 겨울에 피는 동백꽃은 빨간 색깔이 아름답지요. 사람들은 꽃의 색깔을 보기도 하고, 향기를 맡기도 해요. 오늘은 할머니처럼 꽃을 좋아한 선비 박준원의 이야기예요. 박준원이 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박준원이 꽃을 보는 방법’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에는 꽃을 유난히 좋아하는 선비 박준원이 살았어요. 박준원은 틈날 때마다 마당에 꽃을 심고 가꾸기로 유명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박준원을 ‘꽃 선비’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박준원이 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밖이 시끌시끌했어요. 박준원이 무슨 일인지 나가 보니 한 남자와 아이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는 성이 김씨인데, 돈이 많은 부자라서 사람들이 김 부자라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는 며칠이나 씻지 못했는지 머리가 덩수룩하고 얼굴에는 검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옷도 여기저기 때가 묻어 더럽고 구멍이 나 있었지요. 김 부자는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거지 녀석이 감히 누구를 속여?”

“아야, 그만 때리고 돈이나 주세요!”

“돈? 그래. 돈을 줄 테니 흠친 금가락지부터 내놔!”

“아휴, 저는 금가락지 안 훔쳤다니까요!”

김 부자와 아이는 서로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준원은 구경꾼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지요.

평소 의심이 많은 김 부자는 하인들은 물론 가족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금가락지 등을 넣은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다녔대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밖에 나갔다가 주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야기 들려주기

밤늦도록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주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주머니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상금으로 백 냥을 주겠노라 했지요.

“그럼 저 아이가 주머니를 찾아온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부자 말로는 주머니에 있던 금가락지 두 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군.”

김 부자는 여전히 눈을 부라리며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아니면 누가 금가락지를 가져갔단 말이나?”

“처음부터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 어서 약속한 백 냥을 주세요.”

“안 되겠군. 물건을 훔쳤으니 관아에 신고해야겠다! 관아로 가자!”

“시, 싫어요!”

아이가 움찔하자 김 부자는 더욱 의기양양해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다들 봤지? 금가락지를 훔쳤으니 관아에 가기 싫다는 거지!”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돈 많은 김 부자의 편을 들었어요.

“맞아! 거지니까 금가락지가 갖고 싶었을 거야!”

사람들이 김 부자의 편을 들자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둑질을 하다니! 아주 혼이 나 봐야 해. 자, 어서 관아로 가자!”

김 부자가 큰 소리를 치자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준원이 사람들 앞에 나섰어요. 사람들은 지혜로운 박준원이 뭐라고 할지 궁금했어요.

“두 사람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물론입니다! 주머니에는 금가락지가 일곱 개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주머니에는 금가락지가 다섯 개 있었어요. 전 정말 금가락지를 훔치지 않았어요. 흑흑.”

박준원은 구경꾼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보기에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 부자는 잃어버린 주머니에 금가락지가 일곱 개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주운 주머니에는 금가락지가 다섯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주운 주머니는 김 부자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준원은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 주머니는 주인이 없는 것 같구나.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주인이 없으면 네가 가지렴.”

박준원의 말을 들은 김 부자는 너무 놀랐어요. 돈 백 냥을 아끼려다 금가락지를 모두 잃어버릴까 봐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앗, 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아니, 주머니를 찾지도 못했는데 왜 아이에게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야기 들려주기

박준원이 시치미를 뚝 떼고 말하자 그제야 김 부자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원래부터 주머니에는 금가락지가 다섯 개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찾아준 아이에게 백 냥을 주려니 아까워서 그랬지요. 금가락지가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면 주머니도 찾고 상금 백 냥도 아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먼!”

“김 부자는 욕심쟁이에다 거짓말쟁이구먼!”

김 부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람들이 박준원에게 다가가 어떻게 김 부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박준원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꽃밭의 꽃을 보세요. 노란 꽃, 빨간 꽃이 보이지요? 노란 꽃은 향기가
 은은하여 어여쁘고, 빨간 꽃은 향기가 달콤하여 사랑스럽습니다. 꽃을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아야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박준원의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보아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보아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거지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김 부자 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박준원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김 부자는 주머니에 금가락지가 일곱 개 들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거지 아이에게 상금 백 냥을 주기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백 냥을 아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끼다’와 소리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바로 ‘아깝다’인데요. ‘아끼다’와 ‘아깝다’는 소리는 비슷하지만 뜻이 달라요. ‘아끼다’는 어떤 것을 소중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깝다’는 어떤 것을 내놓기 싫다는 뜻이지요. 여러분도 부모님과 함께 소리는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김 부자는 아끼는 금가락지를 주머니에 넣어 두었어요. 주머니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옛날에는 한복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호주머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김 부자처럼 허리에 주머니를 차기도 했지요. 주머니에는 입구를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끈이 있어요.

끈을 당기면 입구가 닫히고, 끈을 풀면 입구가 열려요. 모양은 모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어요. 모난 것은 귀주머니라 부르고, 둥근 것은 두루주머니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알록달록하게 만들기도 했고, 예쁜 수를 놓아 장식하기도 했어요. 주머니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박준원이 꽃을 보는 방법’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선비 박준원은 아이의 겉모습을 보고 미리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김 부자에게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지요. 박준원처럼 우리도 차근차근 생각하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생기면 서두르지 말고 곰곰이 살펴서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